

# 현대차·기아, 혁신 앞세워 글로벌 디자인 경쟁력 입증

‘레드닷 어워드’ 최우수 등 14개상  
단편 영화부터 스마트팜까지 총망라  
‘더 기아 PV5’ 전시·영상 본상 수상

현대자동차와 기아가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디자인으로 글로벌 시상식에서 14개의 상을 수상하며 브랜드 경쟁력을 입증했다.

현대자동차·기아는 ‘2025 레드 닷 어워드: 브랜드 & 커뮤니케이션 부문’에서 최우수상 1개, 본상 13개를 수상했다고 10일 밝혔다.

‘레드 닷 어워드’는 독일 iF, 미국 IDEA와 함께 세계 3대 디자인 어워드로 손꼽히는 세계 최대 규모의 디자인 공모전으로, 독일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 디자인센터가 주관해 매년 제품 디자인, 브랜드 & 커뮤니케이션 디자인, 디자인 콘셉트 부문으로 나눠 우수한 디자인을 선정한다.

현대자동차는 지난해 유수의 글로벌 영화제에서 주목을 받은 단편 영화 ‘밤낚시’로 필름 & 애니메이션 분야 최우수상과 광고 분야 본상을 수상했다.

현대자동차와 광고대행사 이노션, 배우 손석구가 공동 제작한 영화 밤낚시는 전기차 충전소를 배경으로 한 단편 영화로, 자동차에 장착된 카메라의 시선에서 전개되는 독창적 촬영 기법과 새로운 콘텐츠적 시도로 지난해부터 예술계의 주목을 받아왔다.

특히 밤낚시는 자동차 제조사가 제작한 영화



현대자동차·기아는 ‘2025 레드 닷 어워드: 브랜드 & 커뮤니케이션 부문(Red Dot Design Award: Brand & Communication Design, 이하 2025 레드 닷 어워드)’에서 최우수상 1개, 본상 13개를 수상했다. 사진은 현대차 단편 영화 ‘밤낚시’.

라는 점에서 이례적인 도전과 경계를 뛰어넘는 협업의 성공적 사례로 평가를 받으며, ‘제2회 판타지아 국제 영화제’에서 심사위원 선정 국제 단편 경쟁 부문 ‘최고 편집상’ 수상, ‘칸 라이언즈 2025’ 그랑프리 포함해 클리오 어워즈, 뉴욕 페스티벌 등 세계 3대 광고제를 석권하기도 했다.

또한 현대차그룹 싱가포르 글로벌 혁신센터(HMGICS, Hyundai Motor Group Innovation V

enter Singapore)의 세계 최초 로보틱스 기반 체험형 스마트팜 ‘CX 스마트팜’과 한식당 ‘나오’는 혁신적인 기술과 한국 전통 문화라는 차별화된 강점을 바탕으로 인테리어 아키텍처 부문 본상을 각각 수상했다.

관람객들이 씨앗 파종부터 생장, 수확, 식탁까지의 전 과정을 한 공간에서 체험하며 인간 중심의 기술 및 가치가 결합된 이색적인 경험을 해볼

수 있는 ‘CX 스마트팜’은 현대차그룹의 지속가능성과 미래 모빌리티 비전을 한 곳에 담아내며 싱가포르의 교육, 미래 도시 농업 모델에 기여한 혁신적인 모빌리티 고객 경험 사례로 평가받았다.

HMGICS 3층에 위치한 한식당 ‘나오’는 한국 장인들의 손길과 계절별 메뉴를 통해 한국의 요리와 디자인 철학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레스토랑 & 카페 부문에서도 본상을 수상했다.

‘나오’는 ‘안에서 밖으로 움직이다’라는 뜻의 순 우리말로, 전통과 문화를 기반으로 한 인간적인 요소를 강조하며 싱가포르에 한국 문화를 알리는 중심지로서 혁신적인 공간 디자인을 통해 고객에게 더 나은 경험과 가치를 제공하고 있다.

현대자동차는 이 외에도 ▲글로벌 임직원 및 딜러들을 위해 개발된 AI 기반의 무료 광고 제작 플랫폼 ‘현대 애드크리에이터’ ▲글로벌 누적 생산 1억대 기념해 전 세계 고객들의 삶에 미친 영향을 조명하고 다음 1억대를 향한 여정의 시작을 담은 캠페인 ‘한 걸음 더’가 본상을 수상했다.

또한 ▲현대차그룹의 지속 가능한 미래 모빌리티 비전을 감각적으로 표현한 미디어아트 작품 ‘하이드로젠 웨이브’ ▲현대차와 이노션 공동 기획으로 생성형 AI를 활용해 가상의 자율주행 화상실이라는 독특한 콘셉트를 풀어낸 프로젝트인 ‘모빌렛’ 등도 본상을 수상하며 브랜드 커뮤니케이션 분야의 경쟁력을 다시 한번 입증했

다.

기아는 ▲인터페이스&고객 경험 디자인 ▲공간 커뮤니케이션 ▲전시관 ▲필름&애니메이션 등 총 5개 부문에서 본상을 수상했다.

인터페이스&고객 경험 디자인 부문에서는 기아가 개발한 ‘AI 어시스턴트 디자인’이 본상을 수상자로 이름을 올렸다.

차량 음성 인식, 햅틱 등에 적용되는 AI 어시스턴트 디자인은 기아의 로고를 기반으로 심플하면서도 생동감 있게 구현돼, 고객이 움직이는 모든 순간에 영감을 제공하고자 하는 기아만의 브랜드 비전을 시각적으로 표현했다.

공간 커뮤니케이션 부문에서는 기아의 디자인 철학을 담은 전시인 ‘오퍼짓 유나이티드(Oposite United, 서울 밀라노 개최)’와 인천공항 ‘기아 체험형 전시부스’가 기아의 디자인 비전과 문화적 위상을 강화하고 혁신적인 공간 경험을 제공한 부분을 인정받아 각각 본상을 수상했다.

또한 기아가 지난 4월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2025 서울모빌리티쇼’에서 선보인 ‘더 기아 PV5(The Kia PV5, 이하 PV5)’ 전시관도 전시 부문과 필름&애니메이션 부문에서 본상 수상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현대자동차·기아 관계자는 “이번 수상은 현대자동차와 기아가 전통적인 자동차 제조 분야를 넘어, 브랜드 커뮤니케이션 분야에서도 전 세계에 브랜드 철학과 미래 모빌리티 비전을 혁신적으로 소통하고 있음을 인정받은 결과”라고 밝혔다. /임채만 기자

## 현대차·기아, ‘2-스태이지 모터시스템’ 영상 공개

퍼포먼스·효율 만족 EV 모터 구동

현대차·기아가 작년 말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한 ‘대한민국 기술대상’에서 최고의 영예인 대통령상을 수상한 ‘2-스태이지 모터시스템’을 상세 소개하는 기술 영상을 현대자동차그룹 유튜브 채널(영상링크: <https://youtu.be/rA8KARYQVh0>)에 공개했다.

이 영상은 현대차·기아 전기차에 적용되고 있는 첨단 모터 구동 제어 기술을 일반 고객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작된 것이 특징이다.

이는 최근 같은 채널에 게재한 ‘브레이크작동 원리’ 영상과 마찬가지로 기술을 중심으로 고객과 소통을 지속 이어가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영상은 기본적인 모터 구동 시스템의 3가지 주요 부품을 소개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모터는 회전력을 생성하고, 감속기는 그 회전력을 바퀴에 전달한다. 인버터는 배터리의 직류 전력을 교류로 변환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일반적으로 고출력 위주로 전기차의 모터 구동 시스템을 설계하면 도심 주행에서는 효율이 떨어지는 한계가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현대차 기아는 인버터의 역할에 주목했다.

기존 전기차의 인버터에는 실리콘 카바이드 반도체 소자로 구성된 6개의 스위치가 적용돼 있다. 현대차·기아는 여기에 실리콘 전력반도체 6개를 추가, 총 12개의 스위치로 구성된 2-스태이지 모터시스템을 고안해 냈다. 그로써 모터에 인가할 수 있는 전압이 기존 대비 70%까지 확대될 수 있고, 이는 곧 출력 증대로 이어진다.

일상 주행에서는 기존 6개 스위치 한 세트만 사용해 효율을 유지하고, 고속 고출력 상황에서는 두 세트 모두를 활용해 강력한 성능을 안정적으로 이끌어내는 것이 가능해진다.

2-스태이지 모터시스템은 기아 EV6GT를 시작으로 현대차 아이오닉5N, 아이오닉6N, 아이오닉9, 올 뉴 넥소 등에 적용돼 많은 고객들로 부터 호평 받고 있다. /임채만 기자

## 현대차그룹, AI 기술로 차세대 소재 확보 나선다

커스프AI와 전략적 파트너십 체결

현대자동차그룹이 모빌리티 솔루션 혁신을 위한 소재 개발을 위해 영국 인공지능(AI) 스타트업 커스프AI와 협력한다.

현대차그룹은 지난 6일(현지시각) 영국 케임브리지에 위치한 커스프AI 본사에서 현대자동차그룹 박철 신사업전략실장, 커스프AI 체드 에드워즈 CEO, 커스프AI 맥스 웰링 CTO 등 양사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커스프AI와 소재 AI 협력을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

현대차그룹은 이번 파트너십 체결을 통해 소재의 효율성, 내구성, 안정성 등을 높이고 다양한 신소재를 발굴함으로써 모빌리티 솔루션을 혁신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특히 최근 다양한 산업에서 ‘과학을 위한 AI’라는 새로운 연구 패러다임이 대두되고 있는 만

큼, 현대차그룹은 이번 파트너십을 통해 인공지능 기술 역량을 강화해 연구 및 개발 성과를 더 많이 창출함으로써 미래 모빌리티 리더십을 강화할 것이라고 기대한다.

‘과학을 위한 AI’는 AI 기술을 활용해 과학 연구의 효율성과 혁신을 극대화하는 새로운 연구 패러다임으로, AI로 방대한 데이터를 학습해 새로운 물질 구조나 단백질 서열 등을 설계함으로써 기존의 신소재 및 신약 개발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크게 줄이고 성공률을 획기적으로 높여 과학 기술 혁신을 이끄는 접근법이다.

현대자동차그룹 박철 신사업전략실장은 “현대차그룹은 미래 모빌리티 솔루션의 중요한 축인 소재 혁신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다”며 “이번 파트너십을 통해 기존 방식으로 해결이 어려웠던 과학적 과제를 해결하고 차세대 소재를 확보함으로써 모빌리티 경쟁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커스프AI 체드 에드워즈 CEO는 “차세대 소재는 지속 가능한 미래로 가는 유일한 길이다”며 “세계 최고 수준의 제조 전문성을 갖춘 현대차그룹과의 파트너십으로 그 미래를 더 빠르게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임채만 기자



사단법인 한국건강관리협회 건강증진의원(광주)  
Korea Association of Health Promotion

# 건강검진 어디서 받을까?

## 검진은 의료기관에서

예약문의 062)363-4040

<http://gwangju.kahp.or.kr>



심의번호  
220603-중-139779